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1, pp.1-35  
<https://doi.org/10.29212/mh.2024..131.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세종 시기 ‘講武’의 시행과 철원의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최형국 | 수원시립공연단

- 목 차
1. 머리말
  2. 태조~태종 시기 강무의 성격과 위상 변화
  3. 세종 시기 강무의 의례화와 철원 講武場 특성
  4. 강무를 활용한 철원의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5. 맺음말

**초 록** 본 연구는 조선초기 강무의 변화상과 본질적 의미를 짚어 본 논문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세종대 공식적인 강무장으로 확정된 강철원의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먼저, 강무는 사냥을 중심으로 군사훈련을 가미한 국가의 중요 의례였다. 그러나 태조부터 태종까지는 ‘사냥을 위한 의례’적 요소가 많았다. 사냥을 통해 국왕의 개인적인 욕망을 해결하는 형태였다. 반대로 세종대에는 합당한 의례 속에서 사냥을 펼치는 형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위해 군사들의 복장이나 표식을 통일된 군사훈련형태로 안정화시켰다. 세종대 강무의 의례화 과정 중 가장 두드러진 지역적 특징은 철원 강무장의 확정이었다. 특히 철원 강무장의 유지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관할도가 바뀌는 등 현재까지도 그 영향이 지대했다고 볼 수 있다. 세종대의 강무 콘텐츠를 철원의 핵심 역사 문화콘텐츠로 진행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세 가지 단계로 정리하였다.

주제어: 사냥, 강무, 철원, 삼감사, 문화콘텐츠

## 1. 머리말

1392년 조선의 개국 후 초기 100년의 상황은 새로운 왕조가 추구하는 이념과 현실의 충돌 그리고 타협이 공존하던 시기였다. 전 왕조인 高麗와는 다른 조선만의 색깔이 있어야만 왕조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보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중 軍事와 관한 정책과 의례의 변화는 가장 현실적인 ‘고려와의 차이’을 드러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대표적으로 지방 호족들과 중앙 귀족들이 거느리는 私兵은 중앙군을 능가하는 숫자와 군사력이었다. 조선의 개국 후 사병 혁파에 대한 일련의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李居易와 李佇 부자를 비롯한 개국 공신들의 반발로 太祖代에는 쉽게 公兵化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후 정종 2년에 司憲府와 門下府의 상소를 기점으로 하여 조선의 사병은 혁파되었다.<sup>1)</sup> 그 과정에서 사병 혁파에 불만을 표시한 參判三軍府事 趙英茂를 黃州에 귀양 보내거나, 知三軍府事 李天祐와 參贊門下府事 趙溫을 파면하는 등 약간의 반발이 있었지만, ‘종친과 훈신을 위하여 부귀를 보전하게 하고 길이 尊榮을 누리게 한다.’는 정치적인 선언과 함께 일단락되었다.<sup>2)</sup>

이와 함께 새롭게 고려시대에는 시행하지 못했던, 공식적인 武人 관료를 배출하는 시험인 武科시험을 시행하여 武官의 안정

1) 『정종실록』 4권, 정종 2년 4월 6일(신축).

2) 『정종실록』 4권, 정종 2년 4월 18일(계축).

적인 정계 진출이 가능해졌다.<sup>3)</sup> 어찌보면 단순한 무예적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계급상승이 가능했던 고려시대의 군사조직과는 다른 조선만의 공병화된 군사조직의 기틀이 武科를 통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무과시험에는 무예 실기시험 뿐만 아니라, 四書三經을 비롯한 儒敎 經書와 武經七書를 비롯한 병학 이론 시험을 함께 치렀기에 관직에 출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론을 수양해야만 조선의 官職에 오를 수 있었다.<sup>4)</sup>

고려시대의 경우 병학이론을 비롯한 武學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文學하는 사람들과 마찰될 수 있다는 지극히 文治주의적인 발상으로 인해 武科가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sup>5)</sup> 고려 말인 공양왕 2년(1390)에 도평의사사의 건의에 따라 무과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되긴 했으나, 곧바로 왕조가 폐망하면서 실질적인 제도의 안착이 어려웠다. 특히 고려말 당시 무과시험을 추진했던 신진사대부들이 그대로 조선왕조의 관직에 등용되면서 무과시험이 조선초기부터 안착될 수 있었다.

이처럼 私兵혁파와 武科의 제도적 실행은 조선의 군사관련 정책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조선의 군사관련 의례 중 ‘講武’는 당대의 군사적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강무는 국왕이 직접 군사들을 거느리고 일정한 구획 내에서 사냥을 통해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군사력을 점검

3)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1월 6일(기축).

4) 윤훈표, 「조선전기 兵書의 강령과 무학교육」 『역사문화연구』 49집, 역사문화연구소, 2014, pp.31-35.

5) 『고려사』 권74, 지 권28, 선거 2, 학교, 인종 11년 정월. ; 이날의 내용을 보면, ‘武學이 점차 번성하여 장차 文學하는 사람들과 각을 세우 불화하게 되면 매우 편치 못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미 과거에 급제한 자들은 文士와 함께 모두 敍用하되, 武學으로 武士를 선발하는 일과 武學齋의 호칭은 모두 혁파한다.’ 고 하여 武士는 과거시험을 통한 공식적인 관료진입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지방이나 중앙의 호족 私兵으로 근무하다가 무예적 능력이 출중하다면 내부 승진을 통해 장수까지 올라가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하는 軍務에 해당하는 것을 국가의 大禮 중 軍禮의 핵심 의례로 정착시켰기에 더욱 유의미하다. 이 또한 고려의 군사의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독특한 조선만의 색깔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강무에 대한 연구는 지속해서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이현수는 「조선 초기 강무 시행 사례와 군사적 기능」이라는 주제로 강무의 군사 훈련적 의미에 대해 짚어 보았다.<sup>6)</sup> 당시 강무를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시행했는지에 대해 가장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김동진은 「조선전기 강무의 시행과 포호정책」이라는 주제로 강무정책과 호랑이 사냥을 연동하여 捕虎정책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sup>7)</sup>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사냥의 의미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좀 더 미시적 관점으로 살펴본 심승구의 연구와<sup>8)</sup> 조선초기 사냥과 講武의 의례화에 대한 허대영의 최근 연구도<sup>9)</sup> 주목할 만하다.

또한 강무를 의례적 관점에서 살펴본 정재훈의 「조선시대 국왕의례에 대한 연구-강무를 중심으로」는 오례의 중 軍禮 속에서의 의미와 본질을 잘 접근하였다.<sup>10)</sup> 이와 함께 강무의 메가 이벤트적 가치에 주목한 이규철의 「조선시대 강무의 역사적 의미와 콘텐츠화 방안」과 후속 연구는 최근 역사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

6) 이현수, 「조선 초기 講武 施行事例와 軍事的 기능」 『군사』45호, 군사편찬연구소, 2002.

7) 김동진, 「朝鮮前期 講武의 施行과 捕虎政策」 『조선시대사학보』40집, 조선시대사학회, 2007.

8) 심승구, 「조선시대 사냥의 추이와 특성-講武와 捉虎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24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9) 허대영, 「조선 초기 국왕의 사냥에 대한 인식 변화와 講武의 의례화」 『조선시대사학보』106집, 조선시대사학회, 2023.

10) 정재훈, 「조선시대 국왕의례에 대한 연구-講武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52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심을 잘 담고 있다.<sup>11)</sup> 이 밖에도 강무에 대한 안보적 함의에 대한 논고를 비롯하여 비교적 다양한 영역에서 강무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 왔다.<sup>12)</sup>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종시대 강무의 의미와 그것을 활용한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특히 강무는 태조와 태종시대의 설형 형태가 세종시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세종시대 오례의 중 하나인 군례의 강무의로 확정된 형태와 이후 세조시대 이후에는 급격히 시행횟수와 의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강무의 조선초기 변화상과 본질적 의미를 짚어 보고, 세종시대 군사의례로 확정된 강무장인 철원의 역사·지리적 의미의 고찰과 강무를 바탕으로 한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sup>13)</sup> 이를 통해 향후 의례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함께 문화콘텐츠의 지속가능성 혹은 실제 현장 접목 가능성에 대해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

11) 이규철, 「조선시대 강무의 역사적 의미와 콘텐츠화 방안」 『동아시아고대학』52호, 동아시아고대학회, 2018. ; 이규철·이종오, 「조선시대 강무의 메가이벤트적 성격과 강무콘텐츠 제작·활용 방안」 『글로벌문화콘텐츠』37호,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18.

12) 김지동, 「조선전기 세종의 강무시행 평가와 안보적 함의」 『대한정치학회보』21집 2호, 대한정치학회, 2013.

13) 철원의 경우 현재 'DMZ 꽃송이 축제' 중 하부 행사로 '세종대왕 강무행차'라는 행사명으로 지속해서 강무를 지역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3931>, 2022.09.09일자)

## 2. 태조~태종 시기 강무의 성격과 위상 변화

講武는 일정한 기간 국왕이 직접 군사들을 동원하여 특정 지역에서 사냥과 함께 군사훈련을 지휘했던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sup>14)</sup> 강무의 핵심 내용인 사냥은 그 자체로 충분히 군사훈련과 유사했다. 가상의 적을 노루나 사슴과 같은 움직이는 사냥감으로 대체하고 군사들을 통제하여 효율적으로 몰이하여 타격하는 전투방식과 닮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강무는 조선초기에 급격하게 늘어 국가의 핵심 의례인 군례 중 ‘講武儀’라는 독자적인 의례의 영역으로 구축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中宗代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는 독특한 성격의 의례였다.<sup>15)</sup> 특히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정치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쳐 ‘不殺生’이라는 대명제로 인해 의례에서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는 사냥은 터부시되었다.<sup>16)</sup> 그래서 사냥대신 특정한 敎場에서 군사들을 사열하는 방식의 閱兵이나 習陣의 형태가 일반적이었다.<sup>17)</sup> 이처럼 고려와 조선을 구분 짓는 가장 차이 나는 국가의례가 강무였다.<sup>18)</sup>

14) 이현수, 「조선 초기 講武 施行事例와 軍事的 기능」 『군사』45호, 군사편찬연구소, 2002, P.235.

15) 宣祖 28년 9월 10일에 講武를 한 기록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西郊에서 사냥을 중심으로 한 강무를 한 것이 아니라, 군사들의 훈련모습을 참관한 것으로 판단된다.(『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10일(기묘).

16) 심승구, 「조선시대 사냥의 추이와 특성-講武와 捉虎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24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P.175.

17) 권기현, 「고려시대 閱兵의 시행과 그 의미」 『군사연구』 149호, 육군군사연구소, 2020, pp.33-45.

18) 고려시대 제정된 軍禮로는 遣將出征儀·師還儀·救日月食儀·季冬大儺儀가 있으며, 講武儀는 조선의 개국 후 새롭게 정착된 의례였다.(『고려사』 「예지」 군례.)

강무를 조선의 국가의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추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인물은 鄭道傳이었다. 그는 고려왕조와는 다른, 고려왕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조선만의 유교적 의례 확립이 가장 선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무의 의례화를 위해 春夏秋冬 사시의 사냥하는 그림인 「四時蒐狩圖」를 직접 고려 국왕에게 받칠 정도로 정도전은 의욕적이었다.<sup>19)</sup> 이후 정도전은 조선 개국의 기본 강령과 六典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法典인 『朝鮮經國典』을 펴낼 때에도 사냥을 국가의례로 지정하기 위해 논리적 배경을 정리하였다.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兵이란 흉한 일이니 공공연히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聖인이 부득이 마련한 것이니 연마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고로 周禮에서는 大司徒가 春蒐·夏苗·秋獮·冬狩를 함으로 武事를 연마하였다. 그러나 가끔 농사를 방해하고 백성에게 해가되는 폐단이 있는 일인 까닭에 한가한 때에 강습하게 하였다. 또한 畋獵은 짐승을 쫓는 유희에 가깝고 자신을 봉양하기 위한다는 혐의를 받기 쉬운 것이다. 그래서 聖인은 이점을 염려하여 蒐狩之法을 만들었으니 하나는 짐승 중에 백성과 곡식을 해치는 것만을 잡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잡은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宗社와 生靈을 위한 계책이니, 그 뜻이 이토록 깊도다.<sup>20)</sup>

위의 사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볼 문제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周禮를 기준으로 하여 원래는 사시사철에 한 번씩 진행되는 春蒐·夏苗·秋獮·冬狩의 네 가지 국가 공식 사냥의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렇게 일년에 네 번 정도를 공식적으로 사냥을 가면 농사에 방해가 되어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점이다. 셋째, 사냥이 국가의 의례적 기능이 아닌 국왕 개인의

19)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8월 20일(계사).

20) 『조선경국전』 하, 정전 전렵.

사사로운 유희의 일종으로 백성들의 눈에 비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도전은 '蒐狩之法'이라고 하여, '짐승 중에 백성과 곡식을 해치는 것만을 골라서 잡게 하는 것'과 '잡은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 등, 이 두 가지의 핵심 요소가 사냥을 국가의례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근원이라고 짚어냈다.<sup>21)</sup>

정도전이 제시한 사냥의 의례화 즉, 講武儀로의 확대는 이러한 한계점들이 서로 충돌해가며 더디게 제도화되어 갔다. 조선 초기의 경우 대부분 고려시대의 왕실 의례를 기본 골격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로 사냥을 의례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太祖代부터 시작된 사냥의 의례화는 중앙군의 핵심기관이었던 三軍府를 통해 사냥 중심의 「蒐狩圖」와 군사훈련 중심의 「陣圖」의 간행을 통해 기준점이 만들어졌다.<sup>22)</sup> 이후 太祖 5년인 1396년에 이르러서야 중국의 역대의 講武 制度를 인용하여 공식적으로 御駕가 거동하는 국가의식의 일종으로 채택되었다. 당시 이에 대한 사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義興三軍府에서 상소하였다. 삼가 역대의 講武制度를 상고하옵건대, 주나라 시대에는 봄과 여름에는 軍幕에서 군병을 훈련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군사를 크게 查閱했다 하오니, 사철 언제나 교련하므로 그 익히는 것이 정하였고, 안팎으로 다 가르치므로 그 쓰기가 이로웠으니, 이것이 주나라가 나라 지키는 도리를 얻은 것입니다. ...(중략)... 전하께서는 神武의 자질로 王業의 터전을 처음 마련하시와 禮文의 일은 차례로 마련하시면서 講武의 일만은 오직 행하

21) 다음 장에서 후술하겠지만, 강무를 역사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핵심 요소를 정확하게 기준으로 삼고 풀어가야 관련 콘텐츠가 지역민과 더불어 지속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22)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1일(갑자).

지 않으시니, 어찌 盛代의 闕典이 아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中外에 講武의 일을 명령하시어 편안할 때에도 위태함을 잊지 않으시는 계책을 보이시어, 그 강무의 제도와 드물게 하고 자주 하는 절목은 시대와 事勢가 다르오니, 옛날 제도에다가 더하기도 하고 덜기도 하여 「蒐狩講武圖」를 만들어서, 서울에서는 사철의 끝 달에 강무하여 짐승을 잡아서 宗廟와 社稷에 제물로 올리며, 외방에서는 봄·가을 양철에 강무하여 짐승을 잡아서 그 지방의 귀신에게 제사지내게 하면, 武事가 익숙해지고 神과 사람이 和할 것입니다. 강무할 때를 당해서는 御駕가 친히 거동하시는 것과 대리로 행하는 儀式이며, 외방 관원들이 감독하고 성적을 매기는 법을 禮官으로 하여금 詳定하여 아뢰게 하소서.<sup>23)</sup>

위의 기록을 보면, 조선초기 추구했던 강무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 핵심은 祭儀的 요소 즉, 중앙에서는 종묘와 사직 그리고 지방에서는 지방을 보살피는 귀신들을 위무하는 祭物을 확보하는 의례의 일종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武事가 익숙해지고 神과 사람이 和하는 것’이 강무를 국가의례로 지정하고자 했던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의례 특성이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냥을 ‘강무’라는 군례의 일종으로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조선초기의 본질적 한계이자, 특수성이었던 太祖 이성계부터 太宗 이방원까지 3代는 어릴 적부터 제왕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적인 武將에서 국왕에 오른 상태였기 때문이다.<sup>24)</sup>

왕도 사람이다. 비록 왕위에 올랐지만, 십 수년간 자유롭게 말을 달리며 사냥했던 일상이자 취미를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웠다. 궁궐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매일같이 같은 신하들과 동

23)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1월 30일(갑신).

24) 이왕무, 「조선전기 軍禮의 정비와 射禮의 의례화」 『동양고전연구』 54호, 동양고전학회, 2014, pp.330-331.

일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록 왕이라는 절대 지위를 획득했음에도 삶을 지루하게 만들 뿐이었다.<sup>25)</sup> 이런 이유로 都城 근처인 東郊나 西郊에서 매사냥을 비롯한 소소한 취미형태의 사냥은 太祖代와 定宗代에 자주 진행되었다.

특히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후 아직 체제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신하들이 국왕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을 '女色에 미치고, 사냥에 미치게 된다.'<sup>26)</sup>라는 부분을 지속해서 언급하였다. 정종대의 경우도 '遊獵을 경계하여 감히 遊樂하지 말며, 혹 사냥을 한다면 반드시 위로는 종묘를 위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생업을 도와 향락을 탐닉하는 길을 따르지 마소서.'<sup>27)</sup>라는 간언이 이어졌다.

또한 중국의 경우는 황제가 사냥하는 지역을 '苑圃'라고 하여 항구적으로 운영했지만,<sup>28)</sup> '조선은 땅이 좁고 鐵原 이북에서부터 漢陽 이동에 대개 경작하지 않는 빈 땅이 없어서 국왕이 사냥하려면 반드시 禾穀을 손상하게 되므로'<sup>29)</sup> 강무를 의례화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리고 원래는 사시사철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이 기본 형태였지만, 백성들의 농업과 관련해 지장을 주므로 春秋 강무만을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최소한의 원칙으로 삼았다.<sup>30)</sup>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강무는 태조대와 정종대에 공식적으로는 1회씩 밖에 시행되지 못하였다.<sup>31)</sup>

25) 太宗은 직접 “나는 구중궁궐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아니다. 비록 대강 詩書를 익혀서 우연히 儒者의 이름은 얻었으나, 실상은 武家의 자손이다. 어려서부터 오로지 말을 달리고 사냥하는 것을 일삼았는데, 지금 왕위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소연을 할 정도로 武的기질을 감추기 어려웠다.(『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1일(을사).

26)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17일(기미).

27)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8일(갑진).

28)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11일(을묘).

29) 『정종실록』 4권, 정종 2년 6월 16일(기유).

30)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6일(갑인).

이후 太宗代의 강무는 前代와는 다르게 횃수가 대폭 늘어난 것이 가장 큰 특성이었다. 이는 사병 혁파와 함께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그나마 왕권에 대한 기초가 차츰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다. 기록상으로 보면, 春等강무 13회, 秋等강무 10회 등 태종 재위 18년간 모두 23회의 공식적인 강무를 시행하였고, 이후 세종대에 상왕으로 물러선 후에도 지속적으로 강무를 진행하였다. 여기에 비공식적으로 군사를 대동하고 매사냥에 나선 사례까지 합친다면 거의 해마다 4-5회 이상을 사냥하러 궁궐을 비웠다.

태종은 안정적인 강무시행을 위하여 禮曹를 통해 蒐狩法을 공식적으로 상정하여 좀 더 의례답게 운영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병조에서 나누어 田畝를 펴고, 마침내 빙 둘러서서 사냥을 시작한다. 左右兩翼의 장수는 모두 기를 세우고 빙 둘러선다. 대궐 앞에 大駕가 나와 출발하고 인도하며 쉬는 것은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사냥하는 곳에 장차 이르면 대가가 북을 치며 圍內로 들어간다. 有司가 大駕앞에서 북을 울리면, 동남에 있는 사람들은 서향하고, 서남에 있는 사람들은 동향하여 모두 말을 탄다. 여러 장수들은 모두 북을 치며 포위해 나간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몰이하는 騎軍을 배치한다. 임금이 말을 타고 남향하면, 유사가 따르고, 諸君 이하가 모두 말을 타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大駕의 앞뒤로 벌여서고, 有司가 또 따른다. 이에 짐승을 임금 앞으로 몰이를 하는데, 初一驅가 지나가면, 유사가 활과 화살을 정돈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再驅가 지나가면, 兵曹가 활과 화살을 받들어 올리고, 三驅가 지나가면, 임금이 곧 짐승의 왼쪽으로부터 쏜다. 每驅마다 반드시 세 마리 이상이다. 임금이 화살을 쏜 뒤에야 여러 왕자들이 이를 쏘고 여러 장수들도 차례로 이를 쏜다. 이를 마치면 반대쪽에서 몰던 기군도 멈춘다. 이런 연후에야 백성들의 사냥을 허용한다. 무릇 짐승

31)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15일(계사).

을 쏘는데 있어서는 왼쪽 갈비뼈 부위로부터 쏘아 오른쪽 어깨쪽지에 이른 것을 上으로 삼아, 乾豆로 하여 宗廟에 이바지하고, 왼쪽 귀 밑에 이른 것은 그 다음으로 삼아 賓客에게 이바지하고, 왼쪽 넓적다리 부분에서 오른쪽 갈비뼈에 이른 것은 下로 삼아 요리에 사용한다. 여러 짐승들이 서로 따라다니면 다 죽이지 아니하며, 이미 화살에 맞은 것은 다시 쏘지 아니하며, 또 그 얼굴을 쏘지 아니하며, 그 털도 깎지 아니하며, 標識 밖으로 나간 것은 쫓지도 아니한다. 장차 그치려 하면 承樞府에서 사냥터 안에다 깃발을 세우고, 우레와 같이 大駕의 북과 여러 장수의 북을 치며, 군졸들은 급하게 소리쳐 부른다. 여러 장수로서 짐승을 잡은 사람은 깃발 아래에 바치되, 그 왼쪽 귀를 바친다.<sup>32)</sup>

위의 사료를 보면 사냥을 통한 강무 의례의 확립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강무시 특정한 圍를 정하고 이곳으로 驅軍들이 3차례 돌이를 하면 말을 달리며 병조에서 받들어 올린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임금이 가장 먼저 쏘고, 이후 왕자들과 장수들이 차례로 짐승을 향해 화살을 쏜다.

이때 짐승을 쏘아 맞힐 때도 정확하게 왼쪽 갈비뼈 부위에서 오른쪽 어깨쪽지까지 관통한 것을 최상으로 하였다. 정밀하게 심장을 단번에 관통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런 사냥감만 종묘의 제사용으로 활용했다. 만약 다른 곳에 화살이 맞으면 빈객에게 선물로 주거나 당일 요릿감으로 활용했다.

또한, 이미 화살을 맞은 짐승은 다시 쏘지 않고, 그 얼굴을 쏘지 않으며, 圍 밖으로 나간 것은 더 쫓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군사적으로 유용하도록 정밀한 무예 실력을 사냥이라는 특수상황을 통해 국왕의 지위를 의례 속에서 외부에 드러내 고자 했던 것이 강무였던 것이다.

32)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6월 11일(계해).

이러한 태종대 강무의 의례화 과정 중 또 하나의 특성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臺諫과의 마찰이었다. 거의 매해 강무를 준비하려고 할 때마다 대간들은 집단적으로 사냥에 대한 부정적인 상소를 올렸다. 태종은 이에 대해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講武하는 것뿐이다.’<sup>33)</sup>라고 에둘러 말하기 바꿨다.

그러자 대신들은 강무장에 대간 즉,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신들을 참석시켜야만 ‘言路가 막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sup>34)</sup>는 내용의 상소를 다시 올렸다. 대간들은 ‘舉動은 임금의 大節이고, 誠信은 정치의 大寶’<sup>35)</sup>이기에 사냥이나 강무를 국왕이 궁궐 밖으로 거동하는 의례의 일종으로 확립시키고자 했다. 당시 대간들이 국왕이 궁궐을 떠나 사냥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군사반란에 대한 문제였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4) 방금 신하 중에 간사하고 교활한 자가 없으니까 망정이지, 만일 무지한 武人이 틈을 타서 일을 꾸민다면 禍가 不測한 데에 있을 것이다. 내가 前日에 海州·任實·泰安에 간 것을 후회한다.<sup>36)</sup>

위의 사료는 태종 자신이 사냥이나 강무를 통해 궐 밖으로 나갔을 때, 혹시 모를 군사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컸음을 국왕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국왕이 직접 말을 달리며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지거나 流矢에 맞아 상처를 입을 경우에도 국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강무를 비롯한 여타의 궁궐 밖 출입에 대해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33)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9월 19일(기해).

34)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10일(을미).

35)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12일(계유).

36)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5일(갑오).

에 없는 상황이었다.<sup>37)</sup>

특히 강무는 보통 6-10일 정도를 궁밖에 머무르며 군사들과 사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태종의 경우는 여기에 매사냥 등을 더해 한 달에 보름 이상을 쉼 밖에서 지낸 것도 자주 있었기에 이러한 신하들의 지적은 현실적인 것이었다.<sup>38)</sup>

또한 일반적으로 강무는 도성에서 하루 이틀 거리인 비교적 가까운 경기 인근이나 강원도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태종은 평안도 海州와 전라도 任實까지 먼 거리까지 이동하여 짐승을 쫓았기에 신하들의 반발이 계속되었다.<sup>39)</sup>

그리고 강무 때 꼭 필요한 물이꾼인 驅軍이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5,000명까지 동원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방불케 하는 인원이었기에 군사들의 피로도 역시 높았다.<sup>40)</sup> 비록 강무에 동원된 군사들에게는 특별히 근무일수를 3배로 더 쳐주는 혜택을 주기도 했지만,<sup>41)</sup> 그만큼 워낙 고된 일이었기에 한번 강무에 참여한 군사들은 이후에는 가능하면 빠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

37) 고려 말 국왕이 직접 참여하는 사냥은 국왕 중심의 정국 운영과 이를 위한 측근 군사세력을 양성하는 정치 도구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조선 건국 이후에도 국왕의 사냥은 정치적으로 오해의 대상이 되었다. 사냥이 단순히 국왕의 사적인 정치 도구에서 벗어나 공적인 명분과 기능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태조는 정도전을 중심으로 고제의 명분을 되살려 군사훈련의례로서 국왕의 사냥을 지향하였으나 이를 구현하지는 못했다. 이후 태종은 국왕의 사냥 명분을 위하여, ‘사냥이 아니라 講武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왕의 사냥을 군사훈련 의례로 인식 하도록 변화시켰다. 이에 대한 조선초기 강무에 대한 인식변화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한다. 허대영, 「조선 초기 국왕의 사냥에 대한 인식 변화와 講武의 의례화」 『조선시대사학보』106집, 조선시대사학회, 2023.

38) 대표적으로 태종 5년(1405년) 2월의 경우 동교에서 매사냥을 시작으로 광주까지 나갔다가, 다시 일주일 후에 경기도 양주로 강무를 진행했다. 바로 이어 임강과 마전에서 사냥을 참관하다가 개성까지 행차가 이어져 한달내내 쉼 밖에서 지낸 경우도 잦았다.

39)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20일(병신).

40)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3일(계묘). ;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0월 8일(경인).

41)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24일(계사).

었다.

지방관들의 경우도 국왕이 인근 지역으로 강무를 나갈 경우 ‘別進上’이라고 하여 각종 신선한 해산물을 비롯한 토산물을 받쳐야 했기에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sup>42)</sup> 여기에 원래 각도의 지방관들은 원칙적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道の 경계를 넘는 越境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는데, 진상을 이유로 사사롭게 월경하는 일이 잦아서 군사적으로 문제가 되기까지 하였다.<sup>43)</sup>

백성들은 강무장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 것은 물론이고 출입을 금하는 곳이 되므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sup>44)</sup> 특히 가뭄이나 홍수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평지에서 농사짓기가 어려워져 강무장으로 조성된 곳이 火田을 일구기가 좋은 지역이라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강무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가능하면 경기인근의 지역을 해마다 임시로 강무장으로 지정하고, 동원되는 군사들을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이 모색되기도 하였다.<sup>45)</sup> 그러나 태종대까지는 국가의례라고 보기보다는 국왕의 유희적 성격인 ‘사냥을 위한 강무’라는 구색맞춤 정도의 성격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사냥이나 강무에 반대하는 신하들에게 ‘절에 가기 위함이다.’ 혹은 ‘세자에게 사냥하는 법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냥 陪奉하러 간다.’는 식으로 말을 둘러대며 지속적으로 궁궐을 떠나 말을 타고 달렸다.<sup>46)</sup> 이후 세종대에 들어와서 강무의

42)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2월 17일(임진).

43)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1월 4일(정유).

44)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5일(계사).

45)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5일(갑오).

46)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2월 25일(병진).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4일(임진).

軍禮的 속성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 나갔다.

### 3. 세종 시기 강무의 의례화와 철원 講武場 특성

단순한 유희로서의 사냥을 넘어서 국왕이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군례의 일환으로 가야만 의례화가 가능했다. 태종대에도 지속적으로 사헌부와 사간원을 중심으로 이러한 장소가 이어졌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5) 講武는 다만 말 달리고 활 쏘고 치고 찌르는 것만을 급무로 삼는 것이 아니라, 車徒를 點考하고 器械를 檢閱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坐作進退의 절차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sup>47)</sup>

위의 사료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무는 전차와 보병의 움직임을 확인 및 무기를 검열하여 진법운용시 나아가고 물러섬을 익히는 군사훈련의 목적이 최우선이었다. 그러나 태조부터 태종대까지의 강무는 군사훈련보다는 '사냥' 그 자체에 대한 유희적 성격이 강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국왕이라는 존재가 궁궐을 장시간 벗어나는 환경이었기에 정치적 공백감이 컸던 것이 우려의 지점이었다.

세종대에는 이러한 유희적 사냥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강무를 하기 전에 항상 국왕이 직접 祝文을 지어 종묘에 고하고,<sup>48)</sup> 궁궐을 벗어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종대처럼 전라도 임실 등 먼 거리의 강무장은 제외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경기나 강원도 일부로 강무장

47)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5월 23일(갑인).

48)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8월 29일(신미).

을 한정하였다.<sup>49)</sup>

그리고 강무의 횡수도 봄·가을에 매년 2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1회 정도로 줄여 가뭄을 비롯한 자연재해시 爲民의 정책으로 풀어냈다.<sup>50)</sup> 또한 강무 중 晝停 때에 賓客을 위로하기 위해 대동했던 광대인 倡優와 女妓도 데려가지 않는 것으로 변화시켰다.<sup>51)</sup>

이러한 세종대의 강무형태 변화는 禱祭의 시행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세종대에는 국왕이 강무장에 도착한 이후에 軍神에 대한 예우를 軍禮의 차원에서 蚩尤에게 올리는 禱祭를 반드시 진행하였다. 원래 마제는 ‘만일 征伐하는 지방에 이르러 제사 지낼 때는 黃帝와 蚩尤로 하고, 또 田狩하는 때는 다만 치우만 제사한다.’라는 고대 법제에 따라 군사 의례적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었다.<sup>52)</sup> 이후 예조에서 禱祭儀注를 정하여 춘추의 강무할 때에 하루 전 行祭하는 것으로 의례화시켰다.<sup>53)</sup>

그리고 세종대 강무의 의례 중 또 하나의 특징은 세자가 강무를 대신하여 수행했다는 것이다.<sup>54)</sup> 이는 그 정도로 세종대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 및 군권 장악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세자의 위상 강화라는 정치적인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이다.<sup>55)</sup> 강무는 軍權과 관련되었기에 세자가 대신 수행할 경우 반란을 비롯한 혼란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신하들은 연이어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sup>56)</sup> 그러나 강무를 해마다 지속적으로 진

49) 『세종실록』 122권, 세종 30년 12월 10일(임술).

50) 세종대에는 31년의 재위 기간 동안 모두 30회 정도의 강무가 진행되었다. 세종초기 상황이었던 태종의 병이 깊어질 때와 세종의 재위 말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2-3년 정도는 강무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51)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16일(신사).

52)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2월 7일(계축).

53)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9월 22일(갑오).

54)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0월 7일(갑오).

55)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9월 13일(갑자).

행하는 것 또한 의례화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이기에 국왕이 병이 나거나 궐을 비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세자가 강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였다.<sup>57)</sup>

이렇게 세종대 강무를 의례화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이 진행되었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군사훈련의 모습을 강화하는 부분이었다. 대표적으로 강무때에 군사들이 입는 옷을 甲冑로 통일화시켜 마치 전투하는 것처럼 몸가짐을 단속하도록 하였다.<sup>58)</sup>

특히 물이꾼을 비롯하여 강무에 참가한 군사들의 경우 각각의 소속이 모두 달라 軍令을 안정적으로 통일화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군사들의 복장에 특정한 표식을 달아 지휘계통을 시각적으로 통일화시키는 작업이 더해졌다. 다음의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6) 講武로 거동할 때에 호종하는 3품 이하의 군사 및 각 사람들에게는 모두 標章을 주되, 司禁·司僕·三軍鎮撫·내금위·충의위·속고치·鷹師·向化人·隨駕吹螺赤 및 침총제 이상 각 품의 伴人은 모두 중군에 예속시켜 붉은 표장을 써서 가슴에 붙이게 합니다. 중군에 속한 상호군·대호군·호군·별시위와, 좌일번 갑사·우일번 갑사·시위패·별시위·절제사 및 장군 절제사의 반인·취라취·태평소는 붉은 표장을 등에 붙이게 하며, 좌군에 속한 상호군·대호군·호군·별시위·좌이번 갑사·시위패·별시위, 절제사 및 장군 절제사의 반인·취라취·태평소는 푸른 표장을 왼쪽 어깨에 붙이게 합니다. 우군에 속한 상호군·대호군·호군·별시위·우이번 갑사·시위패·별시위, 절제사 및 장군 절제사의 반인·취라취·태평소는 흰 표장을 오른쪽 어깨에 붙이게 하되,

56)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9월 6일(계해).

57)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9월 8일(을축).

58) 『세종실록』 33권, 세종 8년 8월 23일(갑신). ; 다만, 갑주로 완전무장할 경우 전투 마에 무리가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시험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함께 수행되었다.

이 세 가지의 표장은 모두 명주로 꿰매어 네모진 표장을 만들되, 길이는 4치 5푼, 너비는 3치로 하고, 각각 衛號를 쓰고 篆書로 ‘兵曹’ 두 글자의 도장을 만들어 표에 찍습니다.<sup>59)</sup>

위의 기록을 보면, 강무에 투입된 군사들의 복장에 각 소속 부대에 따라 특정한 표식을 부착하여 군사 훈련으로서의 기능을 높여 줬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군 중 내금위를 비롯한 각 품의 수행원이었던 伴人은 붉은 표장을 가슴에 부착하고, 중군 중 상호군을 비롯하여 절제사의 수행원들은 붉은 표장을 등에 부착하고, 좌군에 속한 군사는 푸른 표장을 왼쪽 어깨에 부착하고, 우군에 속한 군사는 흰색 표장을 오른쪽 어깨에 부착시키는 방식이었다.

그 표장은 직사각형의 형태로 ‘아무 軍 아무 番 아무’라 직접 쓰고,<sup>60)</sup> 병조에서 도장을 만들어 찍어 하나씩 부대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강무에 사용할 화살에도 정확하게 소속 부대와 이름을 화살 깃간에 표시하여 혹시 모를 流矢로 인한 사고를 막도록 하였다.<sup>61)</sup>

그리고 이렇게 구분된 군사들 중 수가군사·내사금·사복·삼군 진무·내금위 1번과 충의위 1, 2번은 紅肖旗, 내금위 2번과 충의위 3번은 靑肖旗, 내금위 3번과 충의위 4번은 白肖旗로 구분하여 각 軍旗에 따라 군사들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또한 강무 중 짐승이 갑자기 국왕을 향해 돌진할 경우를 대비해 따로 백 명을 ‘獅子衛’라는 이름으로 편성하여 국왕 친위군처럼 활용하였다.<sup>62)</sup>

또한 강무를 담당하던 임시 직책인 講武支應使를 통해 강무할 때의 禁飮을 따로 만들어 의례화를 위한 준거 기준을 엄격히 시

59)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4월 22일(임진).

60)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3월 24일(갑자).

61)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30일(경오).

62)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8일(갑술).

행하였다. 그중 몇 가지를 보면, ‘하나. 侍衛 大小 군사의 마필을 먹일 乾草는 각 숙소에 미리 積置하여 놓고, 비록 부족하더라도 민간에서 거둬들이지 말게 할 것.’<sup>63)</sup> 하나. 그 도의 감사와 首領官 및 지나가는 지경 내의 守令 이외에 각 고을의 수령은 越境하지 못하게 할 것.<sup>64)</sup> 등 강무시 백성들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와 군령을 통해 각 지방관들의 越境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이처럼 세종대에는 군기를 통한 군령의 전달과 안정적인 지휘통제가 강무 속에서 이뤄졌으며, 군례로서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켜 五禮儀 중 군례의 한가지로 講武儀가 확정된 것이다.<sup>65)</sup> 그 과정에서 철원은 도성과 가장 가깝고 노루를 비롯한 사냥감들이 많아 세종대 최적의 강무장으로 부각되었다. 세종대에 강무장은 경기도의 鐵原을 제외하고 漣川·安峽·朔寧·臨江과 강원도의 金化·金城·淮陽 및 황해도의 牛峯 강무장을 모두 혁파하고 백성들이 개간하여 농사를 짓도록 하였다.<sup>66)</sup>

강무장 축소 과정에서도 군사적·의례적으로 공간 활용도가 높았던 鐵原은 세종대에 가장 의미 있는 공간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도승지를 비롯한 예조판서까지도 ‘경기 鐵原府가 講武하기에 가장 마땅한 곳’<sup>67)</sup>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할 정도였다. 이런 이유로 세종대 지리지에 철원에 대한 설명에 ‘講武場이 부 북쪽에 있다. 땅이 넓고 사람이 드물고 새와 짐승이 함께 있으므로, 講武하는 곳으로 삼고 지키는 사람과 網牌 90명을 두었다.’<sup>68)</sup>라고 적시한 것이다.

63)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9월 14일(병술).

64)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2월 16일(임진).

65)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0월 11일(병진). 『세종실록』 「오례의」 군례 강무의.

66)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2월 22일(경신). ;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9월 19일(신묘).

67)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5일(무진).

68) 『세종실록지리지』 경기 철원도호부.

철원의 강무장은 너른 들과 산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노루를 비롯한 사냥감이 풍부하고 비교적 적은 숫자의 물이꾼으로도 강무가 가능한 곳이었다. 이런 이유로 태종대부터 철원은 강무장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었다.<sup>69)</sup> 조선초기 철원이 강무장으로 지정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7) 전일에 政府에서 仁州·安山·富平·廣州 등지를 講武하는 장소로 삼도록 청하였다. 나는 생각하건대, 토질이 진흙이며 산과 골이 험하고 막혀서 달리고 쫓는 데 불편하고, 또 배를 타고 물을 건너는 어려움이 있으나, 땅이 평탄하여 달리고 쫓기에 편리함이 鐵原만 못하다. 또 철원 등지는 禾穀이 풍년이 드니, 그 芻藁를 이바지하는 데 백성들이 괴로워하지 아니할 것이다.<sup>70)</sup>

이러한 철원에 대한 강무장으로서의 가치는 세종대에도 지속되었는데, ‘平康·鐵原과 같은 새와 짐승이 번성한 곳이 강무장으로 적격이다.’<sup>71)</sup>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강원도 평강과 경기도 철원을 연결하여 수일동안 강무장을 이동하며 군사 훈련과 더불어 진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대표적으로 세종 16년의 강무 기록을 보면, 강원도 평강을 시작으로 경기도 연천과 철원 언덕과 평야를 거쳐 포천 매장원까지 유숙을 하며 경북궁으로 돌아온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sup>72)</sup>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는 도성 주변의 핵심 道라서 수많은 役이 부과되는 지역이라 철원을 강무장으로 지정할 경우 백성들에게 미치는 폐해가 높아지는 우려가 생겼다. 이후 철원 백성들의 강무의 역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기도 철원부는 강원도 철원부

69)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8일(계유).

70)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20일(신사).

71) 『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3월 6일(병술).

72)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일(갑진)/4일(정미)/25일(무신).

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기까지 하였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8) 지금 講武場 때문에 경기도의 철원과 安峽을 강원도로 옮겨 붙이고, 충청도의 죽산현을 경기도로 옮겨 붙이고, 철원과 안협 두 고을의 各品科田·守信田·別賜田·功臣田을 죽산현의 풍저창과 광흥창의 位田과 가까운 곳의 軍資田으로 주었습니다. 죽산현의 兩倉 위전을 만일 철원과 안협으로 옮긴다면 두 고을의 軍需의 수가 적으니, 전라도 초입의 礪山縣을 충청도로 배어 붙이고, 죽산현의 양창 위전을 여산으로 옮겨 붙이고, 여산현에 원래 속해 있는 양창의 위전은 전라도의 각 고을에 나누어 정하소서.<sup>73)</sup>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강무장 지정으로 인해 철원이 강원도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도 철원은 강원도로 편입되어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충청도의 죽산현이 경기도로 옮겨붙고, 전라도 여산현이 충청도로 변경되어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세종대 '철원'은 강무장이라는 공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의 행정구역을 변경시키는 특수한 상황까지 이끈 사냥과 군사훈련의 핵심공간이었다.

#### 4. 강무를 활용한 철원의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세종대 확정된 五禮儀 중 講武儀는 大閱儀와 함께 실질적인 군사훈련을 의례화한 행사였다. 그 중 강무의는 사냥을 중심으로 한 국가단위의 군례로 발전한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종대 최고의 강무장 입지로 활용되었던 곳이 철원이

73)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2월 24일(정묘).

었다.

지금도 철원은 DMZ를 품고 있는 군사전략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부전선 최대 군사요충지로 휴전선 249km 중 86km인 35%를 담당하고 있어 3사단과 6사단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군의 정예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 역시 군장병들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다. 현재 정부의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3사단 사령부를 경기 포천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기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원의 문화콘텐츠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지역경제와 문화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현재 철원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콘텐츠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태봉제’다. 신라말기 궁예가 세운 태봉국의 수도가 철원이었기에 이에 대한 역사성을 확보하여 철원의 대표 축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한탄강 트래킹, 다슬기 축제, 오대쌀 축제 등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시기별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특수한 안보환경을 바탕으로 ‘DMZ 평화관광’을 군부대와 상호협동하여 관광 상품화시키고 있다.

각 시기별로 문화관광콘텐츠를 차별화시키려는 모습이 돋보이지만, 철원의 지역적 특수성을 한 가지 테마로 묶어내고 이미지를 통일시켜 각각의 소규모 콘텐츠들이 융합하여 발전하는 모습은 부족해 보인다. 지역 문화콘텐츠는 인문학적 상상력에서 출발하지만, 지역 산업과 연동된 산업적 기반을 갖지 못하면 문화가치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sup>74)</sup>

철원군의 경우는 전체 인구 5만명 정도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로 앞서 제기한 평화관광이나 한탄강을 중심으로 한 자연문화 콘텐츠, 그리고 태봉국의 수도라는 이미지를 하나로 묶어내는

74) 김평수, 『문화산업의 기초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철원의 전략적 핵심 문화콘텐츠에 '세종대 講武 콘텐츠'가 새로운 대안일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sup>75)</sup>

특히 2023년 '철원역사문화공원'이 7월 개장을 했고, 그 안에 역사문화전시관이 9월에 전시를 시작했다. 개장 이후 4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등 철원·동송읍 지역의 관광 거점이 되고 있다. 인력거를 비롯한 근대 관련 콘텐츠가 주를 이뤄 여전히 핵심콘텐츠가 빈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철원 역사문화공원만의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세종시대 강무이야기로 추가하여 풀어낸다면 안정된 거점의 확보 함께 다양한 지역 연관 콘텐츠 개발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의 강무 관련 콘텐츠를 철원의 핵심 역사문화콘텐츠로 진행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강무의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무 준비 단계 콘텐츠는 강무 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祭儀' 부분을 콘텐츠화 시키는 것이다. 국왕이 강무를 하기 위해 궁궐을 떠나기 전 반드시 진행했던 것이 종묘와 사직에 관련한 축문을 올리는 것이었다.<sup>76)</sup> 세종은 직접 강무와 관련한 제문을 지어 종묘에 고한 후 강무장으로 군사들과 함께 이동하였다. 이와 함께 강무 때 좋은 날씨가 계속되도록 祈晴祭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군례의 시작을 알리는 禡祭를 강무장을 중심으로 미리 지내어 전쟁의 신을 달래고 백성들

75) 강무 콘텐츠에 대한 연구는 이규철, 이종오에 의해 대규모 인력 동원행사인 메가 이벤트의 형태로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소규모 지자체에서 이를 수행하고, 장기 지속적으로 콘텐츠화시키기에는 예산이나 인력 부분에서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된다.(이규철·이종오, 「조선시대 강무의 메가이벤트적 성격과 강무콘텐츠 제작·활용 방안」 『글로벌문화콘텐츠』37호,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18.)

76)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8월 29일(신미).

에게 강무소식을 전하는 시작으로 삼았다.<sup>77)</sup>

이러한 다양한 제의공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술이다. 실제로 기청제나 마제와 같은 의례에서는 국왕이 하늘에 술을 올리는 것이 기본이었다. 현재 철원군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철원 오대쌀 축제’가 해마다 10월 말에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바로 오대쌀 축제의 중심에 강무에서 사용하는 술빚기 관련 행사를 추가하여 세종시대 철원의 강무를 연동시키는 방안이다.

미리 참가자를 모집하여 철원 오대쌀과 누룩을 발효시켜 축제의 현장에서 오대쌀 막걸리를 담가보는 체험형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적으로 탁주뿐만 아니라 제사용 청주로 술 도수를 높여 사시사철 철원 오대쌀로 만든 술을 홍보 및 보급하는 것이다. 이름을 붙이자면, ‘철원 講武酒-세종대왕이 즐겨 찾은 강무장에서 빚은 제사용 술’처럼 오대쌀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연관성을 증폭시키는 방안이다.

그리고 이렇게 빚은 술로 해마다 신년하례와 같은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만들어 철원군수가 제사장을 맡고 인근 군부대 장이 헌관과 축관으로 참가하여 철원 군민들과 함께 강무의를 응용한 제의를 지내며 그해 문화적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철원의 차별화된 문화전략을 구축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세종은 철원으로 강무를 왔을 때, 귀한 손님들 뿐만 아니라 신분이 천한 사람들에게도 술을 내려 그들의 노고를 달래기도 하였다.<sup>78)</sup>

둘째, 강무 실행 단계 콘텐츠는 모의 사냥훈련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대표적으로 세조대에 완성된 三甲射 형태의 교전형 활쏘기 축제와 대회를 풀어가는 것이다. 삼갑사는 4-9명 정도를

77)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9월 22일(갑오).

78)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3월 9일(기묘);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28일(갑자).

한 조로 만들어 甲·乙·丙조가 서로 활을 쏘아 맞췄던 군사훈련이자 경기로 활용한 무예였다.<sup>79)</sup>

조선초기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날카로운 화살촉을 제거하고 가죽으로 끝을 감싼 皮頭箭으로 삼갑사를 진행하였다. 여기에 붉은색 물감을 붙여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상대방 몸에 붙은 붉은색 점의 숫자와 위치에 따라 승패를 가르는 방식이었다. 요즘 예비군 훈련 중 모의 시가지전투에서 활용하는 페인트 탄과 비슷한 장비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이때에는 가족단위로 팀을 구별하거나 특정한 이동형 목표물을 배치하여 흥미성을 유발시키는 서바이벌형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현재 철원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탄강 물윗길 트래킹이나 한탄강 둘레길 걷기 등의 행사와 연동시켜 일정 구간을 트래킹 형태로 걸어서 이동 후 특정한 공간에서 강무의 사냥을 체험하는 Field Archery 형태의 경기를 접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sup>80)</sup> 또한 특정한 공간에서는 신발을 벗고 물 속에 들어가 강 건너편 과녁을 향해 화살을 쏘거나 다슬기를 줍는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와 연동시키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강무에 등장했던 騎射를 비롯한 다양한 마상무예나 겨름형 무예들을 중심으로 ‘(가칭) 철원 세종 강무대회’를 개최하여 드넓은 철원 평야에서 말을 달리며 펼치는 새로운 무예스포츠의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한탄강 물윗길 트래킹의 경우도 말을 타고 일정구간을 이동하는 체험형 승마와 연동하여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79)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6월 8일(신해).

80) Field Archery는 특정한 지역에 다양한 과녁을 세워놓고 이동하며 활을 쏘는 새로운 형태의 경기이다. 마치 골퍼들이 다양한 홀을 이동하며 홀컵에 공을 넣듯이, 다양한 위치에서 활을 쏘아 맞히는 형태의 경기로 해외에서 잘 보급되고 있는 중이다.

승마의 경우는 기존의 장애물이나 마장마술 형태의 경기가 주를 이루지만, 전통시대 파발마처럼 한라마 혹은 조랑말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이어달리기 경주와 같은 새로운 승마경기 콘텐츠 개발도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에 군부대의 장병들과 함께 강무시 활용했던 다양한 陣法을 무예시범과 함께 진행시킨다면 철원만의 독특한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 시킬 수 있을 것이다.<sup>81)</sup> 또한 文宗代에는 강무장의 위용을 높이기 위하여 출입구인 內四門과 外八門 좌우에 火車를 배치하였듯이, 인근 군부대의 장갑차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를 함께 전시하여 안보관광콘텐츠와 軍의 대국민홍보 활동과 연계해도 좋을 것이다.<sup>82)</sup>

셋째, 강무 실행 후 단계 콘텐츠로는 철원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는 콘텐츠로 확장하는 것이다. 강무의 핵심에는 사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냥감을 다양하게 가공하여 제물로 활용하였다. 대표적으로 사냥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말리거나, 고기젓갈로 만드는 방식이 자주 사용되었다.<sup>83)</sup>

현재 철원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돼지고기의 경우 ‘철원 쿨포크’로 이름 붙여 청정지역으로 오염되지 않고 육질이 부드럽고 고소해서 맛이 뛰어나고 신선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sup>84)</sup> 이를 강무와 연동시켜 철원지역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81) 현재 <DMZ평화 꽃송이 축제>의 부대 행사로 ‘세종대왕 강무행차’가 시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대한 역사적 고증과 다양한 연동콘텐츠를 구상한다면 철원만의 차별화된 역사문화콘텐츠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강원도민일보 2022.09.08일자)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3812>)

82)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13일(임오).

83)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26일(기미). ;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10일(병오).

84) 철원군청 홈페이지

문화관광-철원쿨포크(<https://www.cwg.go.kr/tour/contents.do?key=657>)

를 육포로 만들어 '철원 세종 강무 육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브랜드명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근 지역인 포천의 경우 '이동갈비'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상태인데, 철원의 경우도 강무의 의미를 갈비에 투영시켜 '철원 세종 강무 갈비'라는 형태로 역사성을 음식 문화콘텐츠에 접목시키는 방법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 철원군에서 만들었던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들을 '講武'라는 하나의 역사문화적 코드로 연결하여 문화정책들을 풀어간다면 더욱 차별화된 철원만의 문화콘텐츠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5. 맺음말

뛰어난 사냥 실력은 곧 전투에서 발휘된다.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사냥능력은 무력을 상징한다. 따라서 조선의 개국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냥이자 강무였다. 세종대에 조선 개국의 정당성과 위업을 알리고자 만들었던 「龍飛御天歌」의 핵심에도 다양한 무예능력이 잘 담겨져 있다. 그런 이유로 세종대에 주변 신하들이 강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세울 때, 세종은 태조의 위업을 가장 잘 의례화 시킨 것이 강무라고 강변했던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조선초기 강무의 특성과 철원의 문화콘텐츠 활용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태조부터 태종대까지의 강무는 의례적 형태라기보다는 '사냥' 그 자체에 의미를 둔 국왕의 개인적 움직임이 강하다. 비록 왕위에 올랐지만, 십 수년

간 자유롭게 말을 달리며 사냥했던 일상이자 취미를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궁궐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매일같이 똑같은 신하들과 비슷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록 왕이라는 절대 지위를 획득했음에도 삶을 지루하게 만들 뿐이었다. 이런 이유로 都城 근처인 東郊나 西郊에서 매사냥을 비롯한 소소한 취미형태의 사냥은 태종대까지 자주 진행되었다.

신하들의 입장에서 강무를 이유로 국왕이 장기간 궁궐을 비우는 일은 심각한 국정공백을 의미했다. 특히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후 아직 제대로 체제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강무는 더욱 신중하게 생각되었다. 혹시 모를 군사 반란 뿐만 아니라 국왕이 직접 말을 달리며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지거나 流矢에 맞아 상처를 입을 경우에도 국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태종대까지 사간원을 비롯한 臺諫들이 강무를 반대하거나 강무시 함께 동행하고자 했던 본질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세종대에 치러진 강무는 합당한 의례 속에서 사냥을 펼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강무에 투입된 군사들의 복장에 각 소속 부대에 따라 특정한 표식을 부착하여 군사 훈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禱祭를 비롯한 강무와 연관된 의례를 강화하여 오례의 중 軍禮의 핵심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세종대 강무의 의례화 과정 중 가장 두드러진 지역적 특징은 철원 강무장의 확정이었다. 도성에서 하루 만에 도착할 단거리, 사냥에 적합한 지형적 특징과 노루를 비롯한 사냥감이 풍부해서 철원은 세종대 가장 합리적인 강무장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그 공간에서 세자가 대신하여 지속적으로 강무를 수행했던 것도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세종대 철원은 강무장의 유지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편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철원의 강무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특성은 현재의 문화콘텐츠 개발에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철원군에서 만들었던 다양한 역사 문화콘텐츠들을 ‘講武’라는 하나의 역사문화적 코드로 연결하여 문화정책들을 풀어간다면 보다 차별화된 철원만의 문화콘텐츠구축이 가능하다.

세종의 강무 콘텐츠를 철원의 핵심 역사 문화콘텐츠로 진행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무 준비 단계 콘텐츠로는 ‘祭儀’를 비롯한 의례 부분의 콘텐츠와 의례에 반드시 활용되는 철원 오대쌀을 활용한 술 콘텐츠다. 이를 통해 세종대 철원의 역사성을 강무를 통해 알려 나가고, 오대쌀의 활용도와 인지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강무 실행단계 콘텐츠로는 모의 사냥훈련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삼갑사나 다양한 마상무예 및 승마 콘텐츠를 한탄강 물윗길 트래킹이나 한탄강 둘레길 걷기와 연동시키는 전략이다.

세 번째, 강무 실행 후 단계 콘텐츠로는 철원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는 콘텐츠로 확장하는 것이다. ‘철원 쿨포크’로 만든 육포나 장조림 등은 지역농가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지역 문화콘텐츠의 한계점은 모두 비슷하다는 것이다. 지역 차별화보다는 관람객 모집 즉, 흥행에만 집중하여 대부분의 지역축제를 비롯한 콘텐츠들은 마치 유명 아이돌이나 트로트 가수들의 콘서트장처럼 변해버렸다. 또한 비슷비슷한 지역축제가 계속 만들어졌다가, 지자체 단체장의 변화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 문화콘텐츠는 서로 상생하여 시너지효과를 얻어내는 것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단순히 1회성으로 행사를 치르고 사라지는 것이나 오래도록 해당 지역민들과 함께 가꾸고 성장시켜야 지속가능한 콘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세종대 ‘강무’를 중심으로 한 철원의 역사문화콘텐츠 전략은 기존의 모든 콘텐츠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낼 수 있는 킬러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 문화 속에서 가장 ‘철원다운 것’이 철원의 핵심 경쟁력이다. 그 중심에 세종의 ‘철원 강무’가 있다.

## 〈참고문헌〉

『高麗史』

『朝鮮徑國典』

『朝鮮王朝實錄』

권기현, 「고려시대 閱兵의 시행과 그 의미」 『군사연구』149호, 육군군사연구소, 2020.

김동진, 「朝鮮前期 講武의 施行과 捕虎政策」 『조선시대사학보』40집, 조선시대사학회, 2007.

(UCI : G704-000303.2007..40.003)

김지동, 「조선전기 세종의 강무시행 평가와 안보적 함의」 『대한정치학회보』21집 2호, 대한정치학회, 2013.

(UCI : G704-001325.2013.21.2.010)

이왕무, 「조선전기 軍禮의 정비와 射禮의 의례화」 『동양고전연구』54호, 동양고전학회, 2014.

(UCI : G704-001739.2014..54.003)

이현수, 「조선 초기 講武 施行事例와 軍事的 기능」 『군사』45호, 군사편찬연구소, 2002.

(UCI : G704-001528.2002..45.003)

이규철, 「조선시대 강무의 역사적 의미와 콘텐츠화 방안」

『동아시아고대학』52호, 동아시아고대학회, 2018.

(DOI : 10.17070/aeaas.2018.12.52.505)

이규철 · 이종오, 「조선시대 강무의 메가이벤트적 성격과 강무콘텐츠 제작·활용 방안」 『글로벌문화콘텐츠』37호,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18. (DOI : 10.32611/jgcc.2018.12.37.25)

윤훈표, 「조선 전기 兵書의 강의와 무학교육」 『역사문화연구』49호, 역사문화연구소, 2014.

(UCI : G704-000940.2014..49.004)

심승구, 「조선시대 사냥의 추이와 특성-講武와 捉虎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24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UCI : G704-000849.2007..24.011)

정재훈, 「조선시대 국왕의례에 대한 연구-講武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52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UCI : G704-000697.2009..50.021)

허대영, 「조선 초기 국왕의 사냥에 대한 인식 변화와 ‘講武’의 의례화」 『조선시대사학보』106집, 조선시대사학회, 2023.

(UCI : I410-ECN-151-24-02-088923795)

최형국, 「조선초기 軍事 戰術체계와 제주 戰馬」 『군사』93호, 군사편찬연구소, 2014.

(UCI : G704-001528.2014..93.001)

최형국, 「조선후기 야간군사훈련 '야조'를 활용한 역사문화콘텐츠」 『수원 화성 향토문화연구』6집, 수원문화원, 2019.

김평수, 『문화산업의 기초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철원군청 홈페이지 문화관광-철원클포크

(<https://www.cwg.go.kr/tour/contents.do?key=657>)

강원도민일보 : 2022.09.08/09일자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3931>.)

<Abstract>

## The Gangmu(講武) in King Sejong's Era & Its historical content use plan in the Cheorwon(鐵原)

Choi, hyeong guk

(Director-Martialarts, Suwon City Performance Company)

This research paper summarizes the changes and essential meaning of The Gangmu in the early Joseon Dynasty. I considered the question of how to utiliz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 of Cheorwon, which was confirmed as an official training site. First, Gangmu was an important national ritual that included military training centered around hunting. However, there were many private factors from Tejo to Tejong. It became a form of solving the king's own personal desires through hunting. On the contrary,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it became stable in the form of hunting in a proper rite. The most prominent regional feature in the process of ritualizing Gangmu was the confirmation of the military training site in Cheorwon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Several plans for advancing Gangmu contents to the core cultural contents of Cheorwon are summarized in three stages.

Keywords: Hunting, Gangmu, Cheorwon, Samgapsa, Cultural content

